

양현종 끝내 ML 도전... KIA 에이스 찾기



FA 협상 종료 공식 발표... 양현종 메이저리그 도전 의지 존중

오늘부터 스프링캠프 플랜B 가동... 투수 경쟁 통한 전력 끌어올리기

‘할 만큼 한’ KIA 타이거즈가 양현종을 뺀 새로운 마운드 구성에 속도를 낸다. 디데이였던 지난 30일 KIA는 양현종과의 FA협상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현종 측의 요청으로 10일을 더 기다려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KIA는 이날 “양현종이 ‘빅리그’ 도전 의사를 밝혔다. 양현종과의 FA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KIA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다. 앞서 KIA는 양현종을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우대하며 해외 진출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를 해왔다. 2014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2016시즌이 끝난 뒤 FA 신분으로 해외 진출 의사를 밝히자 역시 양현종의 뜻을 존중하며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양현종은 쓴 경험을 했다. 포스팅 결과 해외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KIA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자 팀 대표 선수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며 포스팅을 만류했다. 대신 KIA는 2015시즌 활약 이상으로 특급 연봉을 안겨줬다. 2016시즌 양현종은 7억 5000만원을 받으면서 ‘예비 FA’ 윤석민의 3억 80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FA 최고 연봉 기록을 장식했다. FA신분으로 첫 도전을 했을 때도 양현종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국내 리턴을 선택했다. KIA는 양현종의 예상치 못했던 리턴으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양현종이 해외 진출을 못 박았던 만큼 확실한 전력 보강을 위해 ‘100억’을 투자해 최형우를 영입했고,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타자 나지완과도 FA 계약을 체결한 상황. 해외 진출 의사가 확고했던 양현종을 빼고 2017시즌 구상을 짜두었던 KIA는 이미 총알을 소진한 만큼 단년 계약으로 묘수를 찾았다. KIA는 리그에서 손꼽는 연봉과 옵션으로 어쩔 수 없던 단년계약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무엇보다 양현종이 해외 진출을 강조했던 만큼 다음 FA 자격을 얻기 전에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예상과 달리 해외 진출 대신 KBO리그에 집중했던 양현종은 4년이 지나 다시 FA자격으로 빅리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는 해외 시장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확인한 KIA가 먼저 양현종 측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1월 20일에 앞서 FA계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1월 19일 구체적인 이야기도 오갔지만 약속된 20일 양현종 측은 ‘10일 더’를 이야기했다. 이에 맞춰 KIA도 양현종의 자리를 비워둔 채 새 시즌을 기다렸지만, 10일이 지난 뒤에도 ‘해외 진출’ 뜻을 밝히면서 결국 협상 테이블을 정리했다. 애초 시한을 정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것과 달리 확실한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현지에서도 40인 로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양현종은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도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에서 팬들의 응원 목소리도 있지만, 처음 언급했던 부분과 다르게 팀 운영에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많다. 아쉬운 결과지만 충분한 배려를 한 KIA는 “해외 진출에 대한 양현종 선수의 꿈과 의지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1일 캠프 시작을 앞두고 뒤늦게 양현종 거취가 정리되면서 KIA는 플랜B를 가동해 마운드 다지기에 돌입하게 됐다. 일단 지난 시즌 ‘에이스’로 맹활약한 브룩스를 지켰고, 빅리그 경험을 갖춘 멥덴으로 외국인 원투펀치는 굳건하다. 문제는 토종선발진의 견고함이다. KIA 입장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젊은 투수들의 ‘경쟁’을 통한 팀 전력 상승이 절실하다. 기회의 시간을 얻은 투수들에게 눈길도 쏠릴 스프링캠프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

토틸 ‘코리안 남녀’

女 축구대표 조소현 위민스 이적
손흥민과 한솔밥... ‘듀오’ 탄생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에이스’ 조소현(33·사진)이 ‘월드클래스’ 손흥민(29)과 잉글랜드 토틸 홉스퍼에서 한솔밥을 먹는다. 토틸은 최근 웨스트햄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조소현을 임대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이 낳은 최고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에 여자 대표팀의 허리를 든든하게 책임지는 조소현까지 2명의 에이스가 토틸 유니폼을 입게 됐다. 2009년 수원시설관리공단에서 데뷔해 현대제철을 거친 조소현은 2016년 고베 아이낙(일본) 유니폼을 입으며 해외 리그에 처음 진출했고, 2018년에는 아발스네스(노르웨이)에서 뛰었다. 2019년에는 웨스트햄에 입단하며 지소연(철시)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WSL)에 진출했다. 토틸은 홈페이지에 조소현의 이적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여자 선수 중 한 명이며, 데뷔 이후 A매치 126경기에 나서서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손흥민도 토틸 SNS를 통해 “토틸에 온 것을 환영하며 행운을 빈다”고 영어로 환영 인사를 했다. /연합뉴스



소띠 나지완 “가을야구 준비 됐소”



KIA 올 시즌 새 주장... 지난해 시즌 종료후 챔필서 개인 훈련
“후배들 가능성 무궁무진... 개인 목표는 300홈런 1000타점”

“결과로 팬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KIA 타이거즈 나지완이 ‘주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2021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14년 차 ‘소띠’ 나지완은 올 시즌 주장으로 KIA 전면에 선다. 팀을 대표하는 베테랑과 주축 선수로도 역할이 막중한 나지완은 기대감으로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나지완은 비활동기간 부지런히 챔피언스필드를 오가며 훈련을 해왔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책임감이 더 크다. ‘가을잔치’를 우선 목표로 여겼던 만큼 팀을 대표하는 투수이자 후배 양현종의 부재는 아쉽다. 나지완은 “현종이가 팀에 중요한 선수라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도전을 응원하겠다”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후배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경험도 많이 했고, 좋은 선배들도 있다. 나 또한 선배로서 역할을 해야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 냉정하게 우승전력은 아니지만 5강 들어서 한 팀 팀 이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늦은 나이에 주장을 맡아 부담감은 크지만,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타이거즈의 미래를 생각하면 의욕이 넘친다. 나지완은 “37살에 주장이 됐다. 주장이 되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해야 하는 역할도 있고 책임감이 든다. 조금 빨리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팀이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후배들에게 당근을 확실하게 주고 채찍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특히 89년생 선수들이 많아서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타이거즈에서 두 번 우승을 해왔다. 왕조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바로 그다음에 팀이 추락했다. 그러면 남들의 시선은 ‘우승으로 우승했네’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주장이 됐기 때문에 5강에 들어서 주장으로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팀 성격이 따라

와야 중심 선수나 주장이 역할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며 “당연히 꿈은 우승이다. 우승은 다시 생각해 봐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꿈 같은 일이다”고 밝혔다. 팀을 ‘가을잔치’로 이끌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강팀을 만들고 싶다는 나지완은 “팬들에게 인정받는 선수, 팀 도 이야기했다. 나지완은 “당연히 야구 선수이고, KIA 선수면 결과를 내야 되고 그런 플레이를 보여드려야 한다. 요즘 팬들은 야구 지식도 깊고 잘 아신다. 팬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더 오래 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팬들이 인정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팬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팬들 없이 야구를 해보니 흥이 안 났다.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니 한 번씩 무책임해지기도 했다. 나중에 팬들 들어오셨을 때 행복했다. 선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 코로나19가 종식돼 많은 분이 오시면 선수들이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서 (나와 선수단) 팬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핑계 아닌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팬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 주장이니까 세밀하게 다가가 수 있도록 후배들과 교감하며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선수’ 나지완으로서의 타점을 우선 생각하면서 300홈런 1000타점 꿈에 도전할 예정이다. 나지완은 “중심이 무너지면 선수들도 팀도 무너진다. 중심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타점, 이길 수 있는 타점이다. 냉정하게 팀에 출런 칠 수 있는 타자가 많지 않다. 수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중요할 때 쳐줄 수 있으면 팀이 5강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또 400홈런 치신 분도 계시지만 타이거즈 최다 홈런은 나름 자부심이고 큰 영광이다. 300홈런 1000타점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지만의 WS 유니폼 명예의 전당에 간다

한국인 야수 첫 WS 출전 의미

한국인 야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 무대를 밟은 최지만(30·탬파베이 레이스)의 유니폼이 미국 뉴욕주 쿠퍼스타운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서 전시된다. 탬파베이타임스는 최지만의 유니폼상, 란다 아로사레나의 방망이, 브렛 필립스의 스파이크 운동화 등 지난해 월드시리즈에 출전한 탬파베이 선수 3명의 장비가 명예의 전당으로 간다고 지난 30일 전했다. 모두 특별한 사연이 있는 물건이다. 최지만은 한국인 야수로는 처음으로 2020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격돌한 월드시리즈에서 2차전에 선발 출전해 첫 안타도 쳤다. 이때 입은 역사적인 유니폼이 명예의 전당 선택을 받았다. 작년 포스트시즌의 영웅인 아로사레나는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포스트시즌 최다 홈런인 10개 홈런을 때 사용했던 배트를 내놓았다. 당시 탬파베이의 극적인 승리로 끝난 4차전은 실책과 주자의 오버런, 야수의 악수구 등 혼란의 10초로 회자하는 경기다. 다저스 마무리 켈리 안선을 안타로 두들겨 대역전승의 물고름 든 필립스의 스파이크도 명예의 전당에 갈 자격이 충분했다.



올해 포스트시즌 종료 시까지 ‘가을의 영광 전서’ 세션에서 탬파베이 선수들의 장비와 함께 배치될 다저스의 물건은 클레이턴 커쇼가 1차전에서 던진 초구, 코리 시거의 방망이, 무키 베츠의 원정 유니폼 등이다. /연합뉴스